

통학버스 임차용역조건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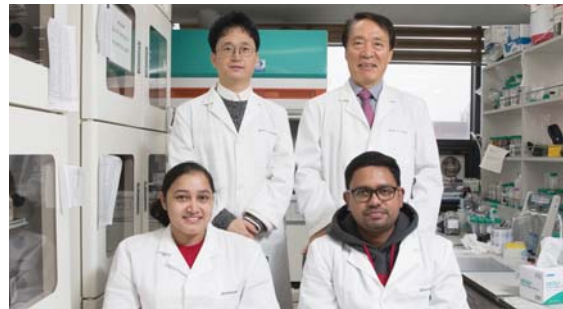
도교육청, 인건비 최고 38% 인상·경비 33%↑ 일반관리비·이윤 최고 27% 인상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2019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를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노동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곧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에 지원하는 방안이라 보고 하루 차량 탑승시간이 2시간 20분(140분)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상여금도 신설해 근로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를 올해보다 25인승의 경우 5.9%, 34인승 13.4%, 45인승 34%까지 증액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25인승 29.7%, 34인승 23.2%, 45인승 27.5%까지 증액했다. 또한 인건비(203일 기준 가정,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상여금)은 70분간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하루 5만 5천원에서 7만 8천원으로 2만 2천원(40.1%) 오른다. 203일 기준 연간 총액으로는 올해 1천 133만원에서 2019년에는 1천 588만원으로 454만원(40.1%) 증액된다. 120분간 탑승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하루 7만 9천원에서 10만원으로 2만 1천원(26.1%) 오른다. 203일 기준 연간 총액으로는 올해 1천 616만원에서 2019년에는 2천 37만원으로 421만원(26.1%) 증액된다. 70분간 탑승하는 안전지도사(동승보호자)의 경우, 올해 하루 2만 6천원에

서 3만 9천원으로 1만 3천원(46.8%) 오른다. 203일 기준 연간 총액으로는 올해 541만원에서 2019년에는 795만원으로 254만원(46.8%) 증액된다.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세금 등을 제외한 경비도 내년에는 최소 5%에서 최대 33%까지 증액했다. 70분간 486만원(5.7%)이 증액되고, 120분간 850만원에서 2019년에는 899만원으로 486만원(5.7%)이 증액되고, 120분간 1,291만원에서 2019년에는 1,728만원으로 437만원(33.9%)이 증액된다. 경비란 차량 감가상각비, 타이어소모비, 수리 및 정비비, 안전 정비비, 차량 검사비 등을 말한다. 임차회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2019년에는 큰 폭

으로 증액된다. 25인승·35km·70분 운행하는 경우에는 올해 473만원에서 2019년에는 614만원으로 140만원(29.7%)이 증액된다. 45인승·60km·120분 운행하는 경우에는 올해 707만원에서 2019년에는 902만원으로 195만원(27.5%)이 증액된다. 한편, 임차용역계약 원가 총액은 25인승·35km·70분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올해 1대의 임차비 3,995만원에서 2019년에는 5,167만원으로 1,172만원(29.4%)가 증액되고, 45인승·60km·120분 운행하는 차량은 올해 6,173만원에서 2019년에는 7,844만원으로 1,671만원(27.1%)가 증액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새로운 암 치료 기술을 개발한 전북대학교 김철생 교수팀.

전북대 김철생 교수팀 새로운 암 치료 기술 개발

세계적 저널인 나노스케일 온라인 최신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김철생·박찬희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 연구팀이 암 세포만을 탐색해 표적 치료가 가능한 뿐 아니라 열과 빛, 약물, NIR이미징, MRI이미징, 표적항체 및 집중치료 등 6가지의 복합 치료 기능을 갖는 완전히 새로운 암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산화철 나노입자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외부 구동 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항암 치료 기술이다. 연구결과는 나노스케일 온라인판에 실렸다. 이번 연구의 공동 1저자인 아파시 박사(Dr. Arathy)와 아라피 박사(Dr. Afesh)는 나노입자와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열 치료와 약물치료를 몸 밖에서 동시에 제어 가능한 새로운 발열 자성 나노소재 개발에 2015년과 2017년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3.325)'에 논문이 게재됐다. /장은성 기자

이후 인공지능(Deep Learning)을 이용해 자성 나노입자가 암 세포만을 향해 후 표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논문이 이번 발표된 것이다. 기존의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 치료법은 약물과 열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지만 수행됐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암 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이 가해지는 부작용으로 인해 임상 적용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암세포를 더 지능적으로 탐지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세포만을 표적화할 수 있도록, 암세포만을 타겟으로 약물과 열치료를 병행하도록 개발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수행되지 않았던 방법이다. 연구진은 개발된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을 통해 실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포럼 성공적 마무리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 통한 축산 4대 문제 근본적 개선법 제시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공학부 연구팀은 25일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산학 네트워크 포럼 및 에코 클린 돈육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및 브랜드 선포식은 동물분자유전공학부, 두지포크, 미래축산(스마트 축산)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동물분자유전공학부 연구팀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축산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에코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연구한 교수진들

의 연구 성과 발표와 본 성과를 활용한 친환경 돈육 브랜드인 '두지포크'의 소개 및 미생물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가축의 질병, 약취, 분뇨처리 및 생산성 저하 등 축산 4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대에서 산학협력으로 연구하여 개발한 축산 기술이다. 본 행사를 위해 정성석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이 환영사를, 이상락 미래축산포럼 위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1부 산학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전북대

허재영 교수가 '에코 클린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연구개발 성과 및 문제 해결형 R&D 클러스터 실증 운영 사례'에 대해서, 전북대 수의대 김원일 교수는 '축산 4대 현안의 통합적 해결 사례 및 성과 확산을 통한 방향성 제시'를, 축산생명연구소 조성백 박사는 '지역 축산 현안(약취) 해결을 위한 현장 접목 추진 현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첫 적용한 에코 클린 돈육 '두지포크' 브랜드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3부 패널토론에는 이학교 교수(동물분자유전공학부), 안정용 지부

장(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윤철희 교수(서울대), 이상석 교수(순천대), 김원일 교수(전북대), 강대경 교수(단국대), 이준호 대표(축산컨설팅), 박정훈 과장(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이 참석하여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축산 현안 해결 및 연구네트워크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토론에서는 "정읍에서 축산 냄새로 인한 주민 갈등은 심각하고 실제로 축산 인근 주민의 고소·고발 건도 있었다"며, "정읍 농가에서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적용하면 폐지에 먹이 축산 전방위적으로 냄새가 줄어들어 확인되었고, 보다 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확보하여 축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의 날 행사' 성료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전주시 일원에서 전북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네스코학교교단 '평화와 인권, 세계 시민교육, 국제이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유네스코 이념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학교를 뜻하며 매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25개 학교가 지정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완산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11개 학교가 참여했다. 전북 유네스코학교는 김병호 회장(신흥고 교사), 박준 부회장(완산여고 교사)을 중심으로 상호 활발한 교류

를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와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베트남 전통공연, 완산여고 난타공연과 함께 2018 유네스코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객사 등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네스코학교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미래인재의 역량을 높이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임하나 학생, 한국보육지원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임하나 대학원생(아동학과)이 최근 가천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회에서 임 대학원생은 '근무기관의 조직 건강성이 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교수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지도교수 채진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임 대학원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서는 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이 중요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무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에서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중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직건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민간단체보조금사업 선정 결과 발표

59개 사업에 8억8000여만원

전북교육청이 2019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소비경제교실 등 총 59개 사업 8억7,921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접수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와 전체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도교육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접수했으며, 민간위원이 3/4이상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여 민간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청정원 classic

순창

축! 전주매일 창간

좋은 생각 고추장!

청정원 순창 찰고추장은

- 태양초 100% | 고추장내 고춧가루 11.3% 중
- 현미 100% | 고추장내 현미 20.4% 중
- 천일염 100% | 고추장내 천일염 6.8% 중